



대학주보

학위복 디자인 변경 10월 말 최종 선정

김수현 기자 soo2023@khu.ac.kr

학생 숙원 사업이었던 학위복 디자인 변경이 확정돼 현재 작업 중이다. 새 학위복은 내년 2월 졸업생부터 입게 된다.

현재까지 사용 중인 학위복은 2010년부터 사용됐다. 가슴에 있는 휘장 외에는 우리학교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다른 학교에 비해 적어 디자인이 밋밋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학교 측에선 학위복 디자인 개선 요구를 인식해 올해부터 디자인 변경 사업을 추진했다.

커뮤니케이션센터에 따르면 ▲기존 학위복 디자인 분석 ▲학위복 현황 및 사례 조사 ▲표적집단면접법(FGI)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학위복을 결정한다고 한다. 그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새 디자인을 개발하는 중이며 의상학과 감선주(의상학) 교수를 주축으로 학생이 참여해 개발 중이다.

최선희 출판디자인팀장은 “우리 학교 창학 정신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색상, 소재, UI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학교의 상징색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학문적 권위를 나타내는 디자인 요소를 표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 팀장은 “학위복 디자인 사업의 최종 목표는 우리 학교 학위복이

단순한 의복을 넘어 학교의 정체성과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기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국내외 주요 대학 학위복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위복 개발 및 생산 관계자를 인터뷰해 장단점을 파악했다.

최 팀장은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학교만의 독창성을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 학생 의견 또한 적극 반영했다. 이는 표적집단면접법과 에브리타임 게시글 분석으로 이뤄졌다. 학위복 변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학부 학생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에브리타임에서 ‘학위복’ 키워드가 담긴 게시글과 215명의 학생이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텍스트마이닝 작업도 진행했다.

최 팀장은 “추후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추가 인터뷰는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여러 시안을 개발해 수정하는 단계다. 이후 총장 보고가 이뤄진 뒤, 9월 중에 구성원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은 온라인 조사와 시제품 제작 후 캠퍼스별 현장 투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더불어 실용성 검증, 구성원 호응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경, 최종 디자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지난 21일,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과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였지만 많은 가족과 선후배가 졸업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사진=김나희 기자)

김나희 기자 nahee100804@khu.ac.kr

국제캠 학식, 또 이물질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국제】지난달 20일 학생회관(학관) 식당에서 제공된 학식에 케이블타이가 다시 한번 발견됐다. 연이은 이물질 발견에 학교는 업체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업체는 또다시 사과했다. 케이블타이는 학관 교직원 식당에서 지난 20일 제공된 김치두루치기에서 발견됐다. 식당 업체(리앤이라마띠네) 원인 조사 결과, 해당 케이블타이는 포기김치 케이블타이와 동일한 이물로 확인됐다. 김치 포장을 뜯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이물질이 식재료에 들어간 것이다.

학교 측은 업체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총무팀 김동주 팀장은 지난 22일 열린 학생회관 식당 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교육을 다시 하겠다”고 항의했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업체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광충곤 리앤이라마띠네 부사장은 “조리 공정에서 케이블타이를 커팅하지 말고 주방 전처리 작업장에서 커팅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 발생이 계약 해지로 이어진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월 체결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이물질이 세 번 이상 발생해야 계약이 해지되고, 이마저도 식약처 점검으로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업체 측의 이물질 발생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케이블타이 발생 건은 계약 해지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케이블타이 발생 건이 ‘원인 불분명’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총무팀 이조원 주임은 “학교 측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며 “식약처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간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아 조리원에 책임을 돌리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사람

면 <편집장>
이지수(미디어학 2020)
<기획팀장>
박상희(미디어학 2021)
<인물팀장>
김동희(미디어학 2021)
<미디어팀장>
정혜원(국어국문학 2021)
<국제뉴스팀장>
황인찬(건축공학 2023)

명 <편집장>
조병연(프랑스어학 2018)
<뉴스팀장>
하시언(미디어학 2023)
<기획팀장>
김률희(정치외교학 2023)
<미디어팀장>
김나희(주거환경학 2022)